

교회소식 | 나무십자가 한인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정오중보기도 - 매일 정오 12시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1. 릴루엣 원주민 밴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성탄 선물보내기

약 20-30분 선에서 연령대에 맞는 선물준비 또는 도네이션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장혜성집사

나이구분	남	여
0-5세	6명	8명
6-14세	22명	17명
15-18세	6명	7명
총 인원	66명 / 목표 40명 / 현재 신청자 10명	

2. 교회협의회 주관 성탄절 연합예배 특송 준비

12월 4일 수요일에 있을 성탄절 연합예배 특송 준비에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찬양지도 : 박청아전도사).

▶교우소식

■ 다과 : 김민선집사 가정 / 다음 주 : 김도희집사/김성욱성도(유지인집사) 가정

▶11-12월 목회일정

- 11/24(주일) 성찬예배
- 12/04(수) 교회협의회 주관 성탄절 연합예배(7PM,호산나교회)
- 12/07(토) 12월 월삭 새벽기도회
- 12/22(주일) 2020년도 제직학교
- 12/25(수) 성탄절 감사예배 / Potluck(11AM)
- 12/31(화) 송구영신예배(11PM)

■예배위원안내

날 짜	1부 기도	2부	헌금위원	안 내
11월 10일	김상훈	박미란	도유경	11월 박미란
11월 17일	문경화	송상현	박미란	

■ 공동기도제목 12시 정오 시간에 함께 중보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	성령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소서.
성도를 위해	박성원 형제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소서.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정 병 완
부목사(유스) 김 상 훈
전도사(키즈) 장 호 선
전도사(찬양) 박 청 아

협력 선교지 및 선교사

캐나다 릴루엣 원주민(이준호 선교사)
북 한 First Steps(수잔 리치 Susan Ritchie)
에디오피아 Petros Network



내 백성을 위로 하라!

Comfort my people.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

주 일 예 배

제 7권 45호

2019. 11. 10

	1부 오전 9시 (설만한 물가)	2부 오후 2시 (교회 본당)
신앙고백 (Confession)	사도신경	
찬 송 (Praise)	찬송가 191장	경배와 찬양
회중기도 (Prayer)	김상훈목사	박미란집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교회소식 및 성도의 교제	
다음세대 축복기도 (Blessing)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봉 헌 (Offering)	찬송가 191장	
말씀선포 (Sermon)	사도행전 21:27-36(신약 225쪽) ‘붙잡힌 사도 바울’ 정병완목사	
파송찬양 (Closing song)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축 도 (Benediction)	정병완목사	

새벽기도회

매일(화-토) 오전 6시
“시편 강해”
인도: 담담 교역자
장소: 교회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요한복음 강해”
인도: 담담 교역자
장소: 설만한 물가

교회학교예배

주일 오후 2시
Kids(드림, 비전목장)
Youth(다니엘목장)
인도: 담담 교역자

사도행전 21:27-36 (붙잡힌 사도 바울)

1. 사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일행을 환영하며 맞이합니다.
2.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에게 지난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선교 결과를 보고하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3.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보수적 성향이 강한 유대교 출신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 악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알립니다. 돌아선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바울이 나실인 정결예식의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을 제안했고, 바울이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 유연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4. 그러나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바울을 붙잡아 살해하려 했습니다.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 바울을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족 유대인들을 대신해 로마 제국의 공무원들을 통해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5. 이때를 시작해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루살렘에서의 고난과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유대인들의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결론을 맡기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6. 사도 바울은 성난 유대인들에게 붙잡혔고, 이후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혀 쇠사슬에 매여 끌려갔지만, 바울은 성령에 붙잡혀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7. 바울이 유대인들의 터무니없는 오해와 비난과 살해 위협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8. 우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성령에 붙들리고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고난과 수고를 피하지 않고 좁은 길을 기쁘게 걸어 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

월요일 -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중북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슬람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피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평화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소서.

화요일 - 자신이 종교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아랍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북아프리카 국가의 30세 이하 연령층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이슬람에서 멀어지는 아랍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수요일 - 과테말라의 상당수 어린이들이 발육부진을 겪고 있는데 원주민 마을에서는 70%가 넘어 서지만 구호사업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기독교 단체의 구호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게 하소서.

목요일 - 무슬림 무장단체와 기독교 민병조직 사이의 내전에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많은 어린이가 소년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내전이 종식되어 더 이상 어린이들이 희생되지 않게 하소서.

금요일 - 15-64세 여성의 79%가 노동에 종사할 만큼 베트남 여성의 노동참여 비율은 아주 높습니다. 베트남 교회가 여성 노동자들의 정당한 대우와 인권을 위해 포괄적인 사역을 펼치며, 여성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토요일 - 릴루엣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성탄선물 보내기 선교사역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준비된 선물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원주민 마을에 전달되게 하소서. 릴루엣 원주민 선교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게 하소서.